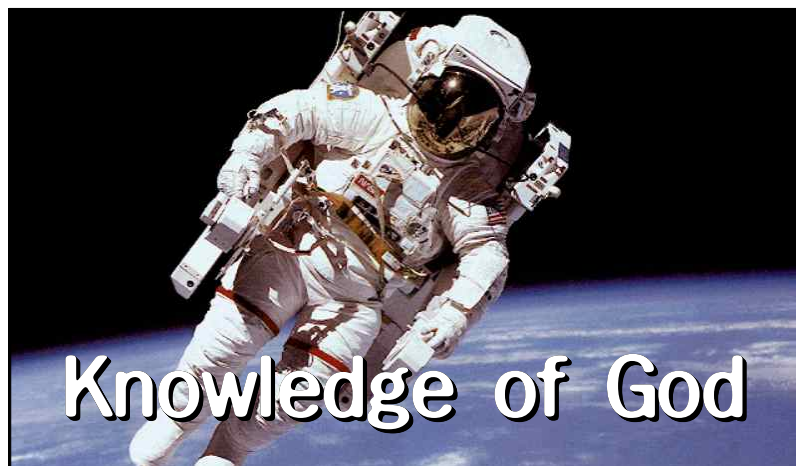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 제1권 : 창조 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

제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제2장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하나님 인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3장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성 속에 심겨져(씨 뿌려져) 있다.

제 4 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 혹은 부도덕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거나 부패되어 있다.**

경험에 의한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을 뿌리셨다. 그러나 백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서 잘 배양하지 않으며 따라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 (시 1:3) 이뿐 아니라 어떤 이는 이 종교의 씨앗을 미신으로 표출시키고 또 다른 이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다.(제1권 iv.1)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인간의 무지몽매(無知蒙昧)는 헛된 교만과 고집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육적인 우매성에 준하여 측정하고 호기심의 발동으로 헛된 사변을 일삼는다.

따라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신의 허구요, 꿈에 불과하다.”(libd)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칼빈은 바울의 글을 인용한다. 즉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롬 1:22) 이런 자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롬 1:21) 또 시편 14:1과 53:1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다.(제1권 iv.2)

이런 자들이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마 13:14,15 시 6:9,10 시 17:10) 다윗에 의하면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시 36:1)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우상 헛된 우상을 창출해 낼 뿐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는 공장かと 같다.

칼빈은 이 같은 자연신학을 거부한다. 즉 칼빈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전적으로 결핍해 있다고 한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4:8 말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와 에베소서 2:12의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를 인용한다.

따라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구약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타락했다고 말한다. 칼빈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종교성이 여지없이 파손되었음을 시사하기 위하여 로마서 1:21-23을 인용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끝으로 칼빈 자신의 말을 인용하자. “인간 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은 뿌리 뽑힐 수 없다. 인간 안에 일종의 신성(神性)이 있다. 그러나 이 씨앗과 신성은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최악의 열매만을 산출할 뿐이다.”(제1권 iv.4)

제 5 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만물의 구성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만물 통치에 나타나 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있다.(요 17:3)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 속에 종교의 씨앗을 뿌리셨을 뿐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작품인 우주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 없으나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제1권 v.i)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경 귀절들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입각한 어떤 신(神) 지식을 말하는데, 이 신(神) 지식은 단순히 불신자들의 자연적인 신(神)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 및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백성의 자연적 신(神) 지식이다. 즉 신앙을 전제 한 자연적 신(神) 지식이다.

“주께서 웃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시 104:2),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시 11:4)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시 19:2-6)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잘 알 수 있으나 이 방면에 어두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에 나타난 조물주의 솜씨에 놀란다고 한다.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예술작품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칼빈은 철인들(스토아학파)의 말대로 인간을 소(小) 우주(宇宙)라 하며 자연의 우주를 대(大) 우주(宇宙)라고 한다. 이렇듯 소우주인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고 한다.(제1권 V.3)

이처럼 인간과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행 17:27) 하늘과 땅을 연구하는 영혼의 능력, 과거를 미래에 연결시키고, 오래 전에 들은 바를 기억해 두며, 그 기원하는 바를 표출해 내는 영혼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가! 믿기 어려운 만큼 훌륭한 것들을 창안해 내는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신성(神性)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선(善)과 악(惡)을 판단하는 영혼의 능력, 예술과 학문을 창조하는 영혼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본성을 명상할 때마다 모든 인간 이외의 본성들까지 통치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통치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게 되며 그를 예배하고 그를 부른다.(제1권 v.6)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자연(natura)’이라 부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여 이 자연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를 섭리하신다. 즉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제1권 v.7)

물론 칼빈은 여기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역사 섭리에 있어서 심판도 있고 축복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축복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예를 시편 107편에서 예증하고 있다. 즉, 시편 107:4-7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도와주신 경우, 시편 107:9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신 경우, 시편 107:10-16은 갇힌 자의 사슬을 끊어주신 경우, 시편 107:17-20은 병든 자와 거의 죽게 된 자들을 치유하시는 경우, 시편

107:23-30은 파선당한 사람들을 아늑한 항구로 옮겨 주시는 경우, 시편 107:33-38은 땅을 비옥케 하시는 경우, 시편 107:39-41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시편 107:43은 말한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없지 않다. 즉 경건한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고 불의한 행동에 의하여 얻어맞으며, 비방과 모독을 당하고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하며, 반대로 사악한 사람들이 번창하며 위안과 안위를 누릴 때 우리는 말세에 있을 상과 벌을 생각해야 한다.(제1권 v.10)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는 시련의 채찍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편 92:5,6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머릿털 보다 더 풍성하시다.(시 40:12)(제1권 v.10) 인간은 자기의 영혼과 우주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를 말면서도 감하지 않고 교만과 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자연(自然)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만물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반사시켰으나 인간은 그의 어리석음으로 그 같은 명백한 증언에 눈을 감고 있다. 진실로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모두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과 우주만물에만 관심을 돌린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제1권 v.11)

인간의 마음은 미궁(迷宮)과 같다. 각 민족들과 개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소유하고 있다.(제1권 v.12) 뿐만 아니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칼빈은 “큰 샘터에서 물이 끓어오르듯 수많은 잡신들이 인간의 정신으로 부터 나온다.”(제1권 v.12)고 주장한다. 이 미신을 말하려면 끝이 없다. 기껏해야 알 수 없는 신(神, 행 17:23)을 예배할 정도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배우기까지는 하나님 없이 있었다고 했고(엡 2:12,13), 모든 인간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롬 1:21)라고 했다. 성경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신들 사이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가르친

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하셨다.(요 4:22) 바울은 이 세상의 임금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였다.(고전 2:8)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배워야 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요 4:22)

이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종교성과 무지와 부도덕으로 흐려진 이 종교성, 인간과 우주 속에 계시된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몽매에 관하여 논했다.

칼빈은 자연계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듯이 하면서도 이 자연계시에 대한 인간의 무지몽매를 역설한다. 즉 인간은 이 무지몽매와 부도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으며, 구속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칼빈은 히브리서 11:3을 인용,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히 11:3)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해 조명되지 않는 한 이 자연계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분별력이 그렇게 훌륭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파악한다는 것이다.(제1권 v.14)

환언하면 기독교인으로서 구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을 통한이 구원의 적용(구원의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자연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명백히 보인다는 뜻이요, 반면에 자연인들에게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자연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마자 양심의 고발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직관’을 심어주셨으나 이를 배양하여 열매 맺지 못하니 결국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 출처 /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년), 저술 및 요약 / 요한 칼빈, 라틴어판 번역 / Paul T. Fuhrman, 한국어판 번역 / 이형기 교수,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 1986. < 다음에 계속 >